

박창득 작사

현중건 작곡

부드럽게

1. 하느님이름으로 써 새로 난 우리 들은  
 2. 주님상둘레에 모여 성체를 모심으로  
 3. 주성령내려오시어 우리를 비추시고  
 4. 예수님몸소 기르신 사랑의 성모시여

서로 서로 사랑하느님 의 형제 들  
 예수리도 머리로 서 주님 의 형제 들  
 믿음희망 주시오며 한 몸 된 우 리 들  
 우리들 도 당 신 품 에 자 라 게 하 소 서

우 리 들 은 한 - 가 족 모 두 한 형 제 라

*mp* 약간 느리게 , 경건하게

우 - 리 는 한 마음 주 예 수 안 에